

北, 핵실험 강행... 盧 “포용정책 어렵다”

어제 오전 함북 김책시 인근 지하... 추가 실험 징후도
정부 “경협 전면 재검토”... 韓日 정상 “공동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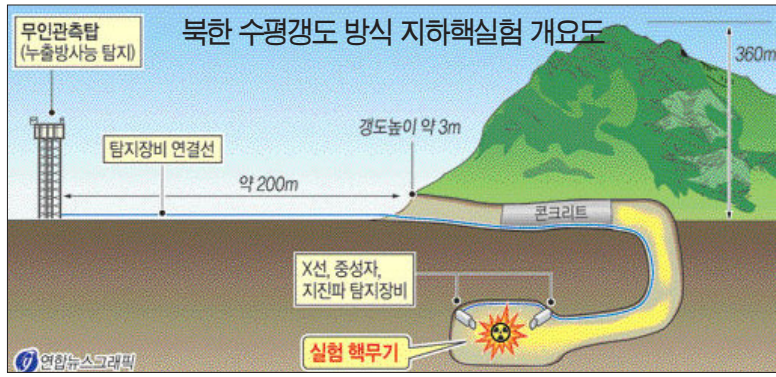
북한이 9일 끝내 핵 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3일 핵 실험을 예고한 지 몇 새만에 핵보유국임을 과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예측불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외교·국방·통일 등 외교·안보부처는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중앙통신은 “10월 9일 지하 핵실험(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오늘 오전 10시35분께 핵실험이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며, 장소는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서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360m 높이의 산 지하인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승규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핵실험 장소를 함북 화대군 지역이 아니라 북위 40.81도, 동경 129.01도 지역으



로 함북 김책시에서 15km 떨어진 상평리 부근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오전 핵실험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된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가 아닌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애초 핵실험이 실시될 것으로 추정된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이 실시될 지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될 경우 추가 핵실험을 한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정원장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도 첫 핵실험 직후 5~6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한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군 지역으

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처음 감지했으며 관련 사실을 즉각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와의 한일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실험 실시 후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변화 가능성과 관련,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향후 대응에 있어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정수식기자 who@kwangju.co.kr



9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U.Square·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북한의 핵 실험 성공 뉴스를 전하는 TV를 보며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韓美 정상 “유엔·우방국과 전략적 대응”

어제 밤 긴급전화회담... 美, 군사행동 가능성 일단 배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 핵실험 사태에 대해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할 것이며 국제사회 및 유엔과 협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번 북한의 행위는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우리 국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 ▲우방과의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처해야 한다 ▲유엔의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는 3가지 점을 밝혔으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

며 이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유엔에서의 협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3가지 대응방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토니 스톨테니버그 미국 대변인은 9일 낮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핵실험이 공식 확인될 경우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노 대변인은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무시하고

도발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우리 측이 제기한 것으로 미국 측과의 조율을 거쳐 이날 밤 9시로 최종 결정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관련기사

- 동북아에 미칠 영향 3면
- 대북 포용정책 위기 4면
- 美·中·日·러 움직임 5면
- 핵 보유국된 북한 6면
- 광주·전남민 반응 7면
- 폭탄 맞은 한국경제 11면

증시 ‘核폭풍’ 코스피 32P↓ 코스닥 48P↓

북한의 전격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충격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60포인트(2.41%) 떨어진 1319.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48.22포인트(8.21%) 떨어진 539.10

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해 9월16일(536.60) 이후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년10개월만에 최대폭인 14.80원 폭등하며 963.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포용정책을 통한 50년 역사만 존중
광주광역시립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설립호보실 062-970-4114 ▶ T.062-970-4200-9
사제로 믿어주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sa.ac.kr
▶ 설립호보실 062-3531 ▶ T.061-360-3000